

# 순천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로 남해안 벨트 핵심도시 기대”

### 노관규 시장 “수도권 대항 남해안 벨트 허브기능·도시재편 기대”

### 복합쇼핑몰 유치·경전선 도심 우회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호재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로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정원박람회가 도시 재편의 기점이 되고 이에 따른 관광 트렌드도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순천시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찾아올 관광객을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1조 5926억 원, 부가가치 유발 7156억 원, 고용 창출 2만 5149명으로 추정했다.

시는 정량적 효과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박람회가 끝나면 인접 도시들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 참석을 권의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인구 절벽의 해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취지다.

순천정원박람회 개최가 도시 재편의 기점이 된다 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유치는 수도권 소비권을 지방으로 끌어올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유치를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 경쟁하는 단순 쇼핑몰이 아닌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에 대항하고 소비권을 남해안으로 이끌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관광객을 유입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효과로 지역의 음식점, 관광지, 숙박 등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열린다. 2023정원박람회는 노 시장의 의지에 따라 10년 전 2013정원박람회와는 달리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해 과감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맨발 걷기 길인 어싱길(earthing)이 순천만습지와 저류지 정원, 순천만국가정원 3개 권역에 7개 코스로 조성된다.

세계자연유산 순천만습지의 어싱길(4.5km)은 바다와 갈대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체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박람회장 주변 농경지 373ha에 유색미와 화훼를 심어 꽃 속의 도시를 연출하는 경관 정원, 특

정구역에 마련된 ‘가든 스테이’ 등이 달린 점이 다. 정원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가능토록 조성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했던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화룡점정 역할도 가능하며 나아가 동서 화합을 이끄는 ‘화개장터형 프로젝트’로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순천정원박람회 개최와 맞물려 모든 것이 가능하기까지는 경전선의 도심 우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전선 우회와 도심 철로의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상승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사람과 물류를 소통시킬 경전선이지만, 기존 노선을 유지해 매일 수십차례 도심을 지나다닐 경우 미래 큰 그림에 역행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00년 만에 철도를 손대면서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철로 그대로 도심 중심부로 고속철이 통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순천은 남해안 벨트 중심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면서 전라선과 연결돼 수도권으로 교류가 가능함에도 전철화 사업이 가장 늦게 추진되고 있고 단순 철로로 계획됐다”며 “도심 관통을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전선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국토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노 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지난 정부에 추진됐지만 도심을 통과할 경우 호남의 커다란 대못이 될 수 있고 국가발전에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광양시, 최고경영인상·최고근로인상·산업평화상 선정

### SNNC 김준형 대표 등 지역경제 발전·산업 평화 정착 등 공로

광양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 평화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인과 근로인을 발굴해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올해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주)SNNC 김준형 대표, 포스코 광양제철소 유철중 과장, (주)포스코엔텍 이희근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최고경영인상’에 선정된 (주)SNNC는 2008년 국내 최초 페로닐켈 공장 건설을 통해 니켈 제련 기술의 향상과 국가 전략 광물 확보에 이바지했으며,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고순도 니켈 매트를 통해 캐이 배터리(K-Battery) 산업에 신규 투자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고근로인상’에 선정된 포스코 광양제철소 유철중 과장은 1991년 입사 후 포스코 제강공장에서 ‘용강의 리더타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강 기술 기반 구축으로 세계 최고 제철소 실현에 일조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숙련 기술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제안 등을 등록하고 발마사지 봉사단, 응급처치교육 재능봉사단, 도심 지역 깨끗한 해양 지킴이 재능봉사단 등 봉사단체 활동도 꾸준히 펼치며 나눔 실천에도 솔선수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평화상’에 선정된 (주)포스코엔텍은 포스코와 해외제철소에 철강부원료를 공급하고 철강 포장에 관한 작업을 수행하며, 철강 제품 포장 및 설



왼쪽부터 최고경영인상 (주)SNNC 김준형 대표, 최고근로인상 포스코 광양제철소 유철중 과장, 산업평화상 (주)포스코엔텍 이희근 대표.

비 엔지니어링, 소재사업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경영총, 노동조합, 노경협의회 참여로 ‘행복해서 안전한 공장 만들기’ 추진으로 성숙한 선진 노사문화와 안전 활동을 연계한 활동 공로를 높게 인정받았다.

수상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 용자금 이차 추가 1% 우대, 행·재정적 지원 및 추천, 시 주요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100세 어르신 축하합니다”

### 주민 4명에 대통령 축하 서한·청려장 전달

곡성군이 100세를 맞이한 주민 4명에게 대통령 축하서한과 함께 청려장을 전달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방이로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청려장이라는 이름은 명아주의 잎이 푸른색이라고 해서 붙여졌다.

정부는 1992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이 되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청려장을 선물하고 있다.

곡성군은 3대 거주 효도 가정 효행장려금 지급, 취약 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고령자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건강한 모습으로 100세를 맞이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이상철(오른쪽) 곡성군수가 100세를 맞이한 장수 노인에게 대통령 축하 서한과 함께 청려장을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곡성군 제공>

#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협약

여수시와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이념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아동·청소년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여수시를 만드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여수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으로 통합된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아동의 권리 교육과 홍보, 아동 교육정책에 협력하며, 여수경찰서는 폭력과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협약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협약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왼쪽부터 정성록 여수경찰서장, 정기명 여수시장,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수시 제공>

# 보성군, 보성경찰서에 교통안전 물품 전달

### 야광조끼·반사판...어린이·노약자 등에 배부

보성군이 교통안전 물품 1000개를 제작해 보성경찰서에 전달했다.

<사진>  
이번 전달된 교통안전 용품은 야광조끼 300벌, 불펜 300개, 야광반사판 200개, 열로카드 200개 등 총 1000개로 인지도가 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했다.

보성경찰서는 군에서 전달받은 교통안전 물품을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현장 순찰 시 교통약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상호 안전건설 과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민의 교통안전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군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1번지 보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한국판 달가스’ 故 김세기 기념사업회 18년째 이웃사랑

### 올해 3300만원 상당 쌀 전달 등 현재까지 6억원 규모 기부 실천

한국판 ‘달가스’ (덴마크 사회 부흥 운동가)로 불리는 선진농업인 고(故) 김세기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우석 김세기기념사업회(이사장 송하국·이하 기념사업회)’가 올해로 18년째 이웃돕기 사업을 실천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4일 고흥군 동강면 소재 죽암농장(회장 김중욱) 강당에서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김중욱 죽암농장 회장과 사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이웃돕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기념사업회는 첫째는 죽암농장이 소재한 동강면을 비롯해 대서면, 남양면 등 3개 면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단체에 쌀을 전달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과역면, 점암면, 영남면까지 6개면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올해는 쌀(20kg) 601포대 3300만원 상당이 전달되는 등 현재까지 6억원이 넘는 상당의 기부를 실천해왔다.

송하국 이사장은 “고인께서 생전에 강조하시던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쌀 기탁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18년이 됐다”면서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석 선생은 보릿고개가 성행하던 시절, 대규모 간척지를 일구면서 고흥 농업 발전에 큰 획을 남기신 분으로 지역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오신 분이였다”면서 “고인의 고귀한 뜻이 우리 군민들의 가슴속에 오래

도록 깊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회고했다.

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는 우석 김세기 선생이 1975년 고흥군 동강면, 1986년 남양면 해안가 660만㎡의 간척지를 만들어 육지로 일군 뒤 일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매각하고 일부는 국가에 기부 채납한 뒤 남은 200여만㎡로 죽암농장을 운영해 왔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5억원의 자본금으로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 2020년에는 죽암농장에 우석기념관을 개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1일 1만보” 순천시 ‘시민 걷기 챌린지’ 실시

### 20일까지 650명에 상품권 증정

순천시가 시민 건강검진기 프로젝트인 ‘11월 가을 만개 시민 걷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순천시는 오는 20일까지, 1일 만보씩 12만 보 걷기 도전에 성공하는 시민 65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한다.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휴대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Walk ON)’의 순천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참여하면 된다.



또 시는 보건소 운동영양실(2층)에서 무료 인바디를 측정해 영양사, 생활체육지도자의 상담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법, 식이요법 등을 안내해주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걷기 운동은 비만, 우울증, 고혈압, 당뇨,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매일 스스로 목표를 정해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된다”라며 걷기 챌린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순천시민 1만116명이 워크온에 가입해 건강 걷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시민,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1회 걷기 챌린지를 운영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씨감자 구입비 지원

### 구례군,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구례군이 시설 재배용 씨감자 구입비를 지원한다.

구례군은 시설감자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11월부터 감자 종자 구입비 2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보급종 씨감자 1상자 가격(3만1680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이다.

종자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